

국산 SUV들의 ‘우아한 전쟁’

‘GV80’ 방패 모양 그릴 매력만점
‘트레일블레이저’ 준중형 기대주
‘XM3’ 쿠페 스타일 디자인 세련

2020년에도 국내 자동차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SUV가 될 전망이다. 넉넉한 공간, 지형을 가리지 않는 뛰어난 활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이다. 이런 예상을 반영하듯 연초부터 신차 출시도 줄줄이 이어진다. 브랜드의 자존심을 걸고 출격을 앞두고 있는 국산 신형 SUV의 특징을 살펴봤다.

●고급 대형 SUV 제네시스 ‘GV80’

새해를 여는 첫 SUV 새 모델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인 ‘GV80’이다. 1월 중순 출시를 앞두고 1일 외관을 공개했는데 기대 이상이라는 것이 업계와 소비자의 반응이다.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디자인 콘셉트를 반영한 GV80은 방패 모양의 크레스트 그릴을 중심으로 좌우에 4개의 쿼드램프를 적용해 제네시스만의 전면 디자인을 완성했다. 대형 SUV이지만 마치 쿠페처럼 날렵하게 떨어지는 우아한 루프라인도 차별화 포인트다.

기존에 볼 수 없던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도 적용했다. 인공지능으로 주행 패턴을 분석해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흡사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항속기술,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 대향·교차차량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세대 고속도로 주행보조 등 다양한 신기술을 통해 수입 경쟁 브랜드를 압도



방패 모양의 크레스트 그릴로 존재감을 극대화한 제네시스의 첫 SUV 모델 ‘GV80’. 스포츠세단 카마로를 떠올리게 하는 역동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인 쉼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쿠페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경쟁사 모델과 차별화를 꾀한 크로스오버 SUV 르노삼성 XM3 인스파이어(위부터).

사진제공 | 제네시스·쉐보레·르노삼성

하는 안전성을 확보했다.

정숙성과 편의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세계 최초로 주행 중 노면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했고, 진보된 음성인식 기술을 도입해 음성명령으로 선루프·창문·트렁크 개폐, 카카오톡 메시지 발신도 가능하다.

●다크호스 쉼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쉐보레는 2019년~2023년까지 국내 시장에 15종의 신차를 출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해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대형 SUV 트레버스를 출시해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면, 올해는 준중형 SUV인 트레일블레이저로 SUV 판매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쉼보레의 소형 SUV인 트랙스와 중형 SUV인 이쿼녹스 사이의 간극을 채워줄 핵심 모델이다. 이쿼녹스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해 트레일블레이저가 쉼보레 SUV의 재도약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35L 차세대 E-터보 엔진이 적용될 예정이며, 국내 공식 출시는 16일 예정이다.

●르노삼성 재도약 이끌 ‘XM3 인스파이어’

르노삼성은 올해 신차 6종을 출시해 내수 10만대 판매 회복을 노리고 있다. 핵심 모델은 준중형 크로스오버 SUV 모델인 ‘XM3 인스파이어’다.

차별화 포인트는 디자인이다. BMW X4나 벤츠 GLC 등에서 볼 수 있던 매력적인 쿠페 스타일의 디자인을 앞세워 새로운 시장을 열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판매된 형제 모델인 아카나보다 프론트, 헤드라이트, 앞뒤범퍼, 휠, 도어 하단부 등을 더 세련되고 풍부하게 마감했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차별화했다는 것이 로렌스 반 덴 에커 르노그룹 디자인 총괄 부회장의 전언이다. 아카나에는 1.3리터 TCe 가솔린 터보엔진과 X-Tronic 무단변속기가 적용되지만, 국내 판매 모델에 들어갈 파워트레인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출시는 상반기로 예정이다.

sereno@donga.com

BMW, CES서 ‘i3 어반 스위트’ 첫선



BMW가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에

서 전기차 i3 어반 스위트 모델을 공개한다. i3 어반 스위트는 운전석과 대시보드를 제외한 기존 i3의 모든 부분을 변경했으며, 차량 실내를 호텔 스위트룸과 같은 느낌으로 구성했다. 탑승객은 차 안에서 휴식을 하거나 차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으며, 편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휴식용 발판이 장착된 카시트, 천장에서 내려오는 스크린, 개인용 사운드 존 등을 갖추고 있다.

쌍용차 전시장 방문객 ‘세뱃돈’ 이벤트

쌍용차는 새해를 맞아 전시장 방문객에게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행운의 세뱃돈 봉투를 증정한다. 봉투 속 락키넘버로 인터넷 이벤트 페이지에 입력하면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롯데리조트 속초 숙박권, 영화관람권, 백화점 상품권 등 새해선물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2월 12일 발표된다.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방문, 개소세 환원 전 가격 지원을 비롯한 쌍용차의 1월 구매혜택을 SNS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치킨세트 교환권, 편의점 기프티콘을 온라인 즉석경품으로 제공한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르노삼성 ‘더 뉴 QM6’ SUV 월간판매 1위 도약

12월 7558대 판매 폭발적 반응
국내 유일 LPG SUV 성공 신화

르노삼성자동차의 중형 SUV인 QM6가 부분변경 모델 ‘THE NEW QM6’를 출시한지 6개월만에 국내 SUV 시장 월간 판매 1위로 올라섰다.

QM6는 2019년 7월 한 달 동안 4262대를 판매하며 중형 SUV 시장에서 처음 판매순위 2위에 올라섰다. 이후 꾸준히 2위 자리를 지켜오다 12월 7558대를 판매하며 중형 세그먼트를 넘어 전체 SUV 시장에서 판매 1위로 도약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SUV 시장에서 QM6가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압

도적인 가성비에 있다. 디젤 SUV가 대세를 이루던 2016년 후반 주자로 나온 QM6는 가솔린 모델을 선보이며 ‘SUV=디젤’이라는 공식을 깼다. 출시 3년 만인 2019년 6월 나온 부분변경모델 ‘THE NEW QM6’는 국내 유일의 LPG SUV로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QM6 LPe 모델은 LPG 탱크를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탑재하는 도넛탱크를 적용해 SUV의 장점인 트렁크 공간을 살렸고, 가솔린 모델에 버금가는 주행성과 연

비를 확보해 QM6의 재도약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QM6 전체 판매량의 40% 이상이 LPe 모델이다.

김대준 르노삼성자동차 영업본부장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만들어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며 “르노삼성자동차는 QM6를 통해 이 같은 공식을 입증했으며, 2020년 새해에 출시할 신차에도 르노삼성자동차만의 가치를 담아내 고객들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는 제품을 선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목에 걸어 착용하는 의료기기 LOBAC M6

근육통증 완화 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번호 04-785호

목걸이용 LOBAC M6, 손목용 LOBAC LH, 허리용 LOBAC LP3

2020년 로박엠6 목걸이 신제품 출시기념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한다.

최근 근육 통증을 완화시키는 '로박엠6 목걸이용'이 출시되었다. 이 목걸이용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과 한국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료기 품목허가 제04-784호)다.

알루미늄 판에 아노다이징 처리한 로박엠은 가벼운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로박엠6 목걸이용의 신상품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LOBACM1, M2 출시된 가운데 주식회사 나라컴퍼니 대표 펜던트에 4가지 색상을 넣어 상품 디자인에 다양성을 더했다는 "기존 로박엠6 목걸이용 펜던트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했다"고 밝혔다.

해 타원형이 아닌 원형으로 새롭게 만든 상품이다"면서 "

문의 070-4914-5205 (www.lobac.or.kr)



로박엠



로박엠



남여공용



남여공용



남여공용



남여공용



여성용



남성용



남성용